

도쿄올림픽 사실상 1년 후 개최 유력

캐나다 첫 불참 발표 속 호주도 “2021년 대회 준비”
세계육상연맹은 IF로는 처음 올림픽 연기 요청

올해 7월 열릴 예정이던 2020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1년 후인 2021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캐나다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는 처음으로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에 불참하겠다고 23일 공식 발표했다.

캐나다올림픽위원회(COC)와 패럴림픽위원회(CPC)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세계보건기구(WHO)에 도쿄올림픽·패럴림픽 1년 연기를 긴급하게 요청한다”며 “올림픽 연기에 따른 일정 재조정 등 IOC가 모든 복잡

한 사항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돕겠다”고 성명에서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COC는 올림픽 연기에 내재한 복잡한 문제를 잘 알고 있지만, 선수와 세계인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 전에는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의 발표에 이어 호주올림픽위원회도 자국 선수들에게 “2021년 여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처럼 사실상 연기를 요청하며 보이콧을 선언한 셈이다.

호주올림픽위원회는 “올해 7월에 올림픽을 예정대로 열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선수들에게 아예 내년 여름 올림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달했다. 호주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는 “나라 안팎의 급변하는 환경에선 올림픽에 내보낼 호주 선수단을 구성하지 않는다”라며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세계육상연맹은 현재 코로나19가 강타한 유럽과 미국 지역 선수들의 훈련 부족 등을 명분 삼아 IOC에 “올해 7월 도쿄올림픽은 실현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IF(종목별 국제연맹)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연기를 요청했다.

노르웨이올림픽위원회는 21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도쿄올림픽 개최를 미루자는 의견

을 담은 공문을 IOC에 발송했다.

브라질올림픽위원회도 같은 날 도쿄올림픽 1년 연기를 주장했고, 슬로베니아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콜롬비아올림픽위원장도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 우려, 공평한 출전 기회 박탈 등을 이유로 올림픽 연기 주장에 힘을 보탰다.

미국육상협회와 수영연맹, 영국육상연맹 등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이 걸린 육상과 수영 강국의 종목 단체도 지금 이 상태로는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없다며 IOC에 올림픽 연기를 요구했다.

도쿄조직위와 IOC는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기 시점에 따른 여러 시나리오를 강구할 예정이나 선수들과 NOC, IF의 시선은 2021년 개최로 향하는 모양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한국배구연맹(KOVO) 임시 이사회에서 조원태 한국배구연맹 총재와 각 구단 단장이 회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배구 사상 첫 정규리그 조기 종료

V리그 출범 후 첫 조기 종료
순위 5R 기준… 우승팀 없어

한국배구연맹(KOVO)이 2019-2020 V리그를 조기 종료키로 했다.

순위는 남자부 7개, 여자부 6개 팀이 같은 수의 경기를 치른 5라운드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정했다.

2005년 출범한 V리그가 정규리그를 조기 종료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단 4월 5일 전에 경기를 치르는 건 부담스럽다. 체육관 대관 문제, 다음 시즌 일정 등을 고려해 4월 14일을 시즌 종료일로 정한 KOVO에 윤신의 폭은 좁았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도 20일 2019-2020시즌 여자프로농구의 시즌 ‘조기 종료’를 결정한 것도 KOVO 이사회의 참고 자료가 됐다.

2019-2020시즌 순위는 ‘5라운드 종료 시점’으로 정했다.

KOVO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무국 회의실에서 남녀 프로배구 13개 구단 단장(1개 구단은 단장 대행 참석)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 열고 리그 종료와 재개 여부를 논의했다. 나흘 전인 19일에도 KOVO는 이사회를 열었지만, 리그 종료와 재개 사이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3일 조원태 KOVO 총재는 “오늘은 결론을 내리지”라고 요청했고, 각 구단 단장도 동의했다. 격론 끝에 코로나19 위협으로 리그를 재개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V리그는 6라운드까지 펼치지만, 이번 시즌에는 팀마다 많게는 3경기, 적게는 1경기만 6라운드를 치렀다.

KOVO 이사회는 ‘같은 경기 수’가 순위 선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5라운드 종료할 때의 순위는 리그 중단을 결정한 3월 3일까지의 성적과 같았다.

남자부는 5라운드까지 승점 64(23승 7패)를 쌓은 우리카드가 대한항공(승점 62, 22승 8패)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여자부 1위는 5라운드 기준 승점 52(19승 6패)를 얻은 현대건설이었다. 현대건설은 GS칼텍스(승점 51, 17승 8패)를 2위로 밀어냈다. 연합뉴스

남자부는 5라운드까지 승점 64(23승 7패)를 쌓은 우리카드가 대한항공(승점 62, 22승 8패)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여자부 1위는 5라운드 기준 승점 52(19승 6패)를 얻은 현대건설이었다. 현대건설은 GS칼텍스(승점 51, 17승 8패)를 2위로 밀어냈다. 연합뉴스

대한장애인역도연맹 9대 회장에 송영직씨

송영직(사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역도연맹 초대회장이 대한장애인역도연맹 제9대 회장에 당선됐다.

23일 제주도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송 회장은 지난달 28일 대전에서 치러진 대한장애인역도연맹 제9대 회장 보궐선거에서 경선을 통해 선임 회장 자리에 올랐다.

앞서 송 회장은 정견문 발표에서



신인선수 발굴을 위해 학생부 대회를 신설하고 스태프부 국제대회 개최에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부의 탕평 인사로 균형과 전문성을 갖춘 연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송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시·도지부와 소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역도연맹의 위상을 재건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도루는 이렇게 하는거야” 23일 오후 광주 북구에 위치한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 자체 흥행전이 열렸다. 흥팀 1회 초 2사 2루에서 4번 황대인 타석 때 황윤호가 과감하게 3루 도루를 시도해 백팀 장영석의 태그에 앞서 세이프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는 한국이 더 안전하다…”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들
이달중 모두 국내서 훈련

미국에서 개인 훈련을 하던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들이 한국으로 들어온다. 삼성 라이온즈와 한화 이글스 외국인 선수들은 입국 일정을 확정했다.

삼성은 23일 “벤 라이블리, 데이비드 뷰캐넌, 타일러 살라디노 등 3명이 24일 오후 5시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선수 3명은 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구단 버스를 타고 대구로 이동해 25일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19 관련 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음성 판정이 나오면 삼성 선수단에 합류해 훈련을 시작한다.

삼성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스프링 캠프를 소화하다가 이달 8일에 귀국했다. 그러나 외국인 선수 3명은 미국으로 떠나 개인 훈련을 했다.

애초 삼성은 2020 KBO리그 개막일이 정해지면 2주 전에 외국인 선수에게 귀국을 요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막일 확정이 늦춰지고, 미국에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선수들을 조금 빨리 한국으로 불러들이기로 했다.

한화도 23일 외국인 선수 입국 일정을 확정했다. 제러드 호잉과 채드 벨은 시카고에서 출발해 25일에 입국하고, 워릭 서폴드는 태국 방콕을 경

유해 26일 오전에 한국으로 들어온다.

한화 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여행각의 입국과 환승 등에 제약사항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항공편을 조정해 입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O리그는 아직 정규시즌 개막일을 확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3월이 끝나기 전에 10개 구단 외국인 선수 모두 입국할 전망이다.

두산 베이스, NC 다이노스, 롯데 자이언츠, KIA 타이거즈 외국인 선수들은 스프링캠프를 마치고 국내 선수들과 함께 입국했다.

SK 와이번스도 아내의 출산을 지켜본 제이미 로맥만이 18일에 따로 입국했고, 다른 두 선수는 국내 선수들과 함께 이동했다.

삼성, 한화, LG 트윈스, 키움 히어로즈, kt wiz 등 5개 구단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피해 외국인 선수의 미국, 멕시코 개인 훈련을 허락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커지고, 각 구단이 자체 청백전 등 훈련에 속도를 내면서 외국인 선수들의 입국을 잡았다.

LG 타일러 월슨은 22일에 입국했고, 로베르토 라모스는 23일, 케이시 켈리는 25일에 입국한다.

kt 외국인 선수 3명도 23일에 입국하고, 키움도 27일에 외국인 선수 3명 모두 한국땅을 밟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상 장

제주혁신성장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대표 양 지역

위 기업인은 제주지역 주력산업육성사업을 통해 기업 육성발전과 일자리창출 등 제주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이를 널리 알림과 동시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

제주도 에너지공사

벤처기업

인공지능 기술보유

한화 Q-CELL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따뜻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

나눔에너지

인공지능보유 / 벤처인증기업 / 고용우수기업

- 현대에너지 솔루션 소프트웨어 계약 성사
- 제주지역 단일공사 1MW급 최초 스크류공사 시행 (시공성 우수, 안정성 우수_인발테스트 리포트 결과 기준치 대비 1.5배 강함)
-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 주관 제주지역 우수사례업체 선정, 제주혁신성장대상

"도내 1 금융권 최소 금리(2% 후반 ~ 3%초반대)로 금융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2019.06

제주도청 고용우수기업 선정 / 한화 큐셀 (Q-CELL) 제주도 쿠파트너 협력기업

2019.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 19

2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주) 나눔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 064 - 745 - 0420

FAX. 070 - 8812 - 0420